

지역 소식통

지역인재양성 정책 '결실'

정현을 익산시장 시확산방지 살처분 참여

익산시는 지난 6일 용동면 종계·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AI 확산방지를 위해 500m 이내 농장의 살처분을 결정하고,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직접 살처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살처분은 용동면 발생농장 포함 4농가 22만수에 해당한다. 이날 정현을 시장과 공무원 250여명은 물론 김정수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조규대, 임병길, 김태원, 김연식, 조남석 의원들이 살처분에 동참했다. 이에 국회의원 조배숙, 이춘석 의원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서울대 8·고려대 21·연세대 20명 등 수도권 지역 583명 합격

군산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및 명문대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군산시 지역인재양성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군산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및 주요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서울대 8명, 고려대 21명, 연세대 20명을 비롯해 583명이 합격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0여 명(30%)이 늘어난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이처럼 2017년 대학입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군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펼쳐온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그 배경으로 손꼽고 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과거 군산의 교육환경이 침체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찾았다.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우수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군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중학생 학습의욕 고양을 위한 '학습동기 부여 멘토링 캠프 운영', '우수 중학생 장학금 지

원 사업'을 통해 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그 결과 우수 중학생의 권의 유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을 분기점으로 2014년 124명, 2017년 94명으로 확연하게 감소했다.

아울러 재단의 핵심사업인 군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과 강의로 전반적인 학생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매년 주요 대학 진학을 제고에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시티투어 매일 운영

익산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 대표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매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익산순은보석찾기' 코스는 매월 화, 목, 토요일 주3회 '세계유산' 코스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주1회 등 총 2개 코스 주 4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0인 이상 관광객이 원하면 시티투어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기로 했다.

시티투어는 적어도 출발 하루 전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 시티투어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성인은 4,000원, 학생과 경로우대자, 군인 등은 2,000원, 단체는 3,000원의 탑승료를 부담해야한다. 단, 생수, 간식, 점심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사전 예약은 익산시청 문화관광과(☎063-859-5824), 이일관광(☎063-854-4522), 해밀여행사(02-849-8843)으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첨단스튜디오 리모델링 완료

복합 스튜디오 형태... WK-MOOK 콘텐츠 제작 인프라 강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MOOC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및 교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6일 김도중 총장과 정정권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첨단스튜디오는 기존 평면 136석의 좌석 배치를 계단식 84석과 평면 117석으로 변화시켰으며, 교수들의 실제 강의를 진행하

고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스튜디오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특히 최소 3개의 무대 세트를 제작해 MOOC형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WK-MOOK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강화했다.

김도중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해 WK-MOOK 콘텐츠에 기존의 영어 캠프와 더불어 베트남, 캄보디아

언어를 탑재해 확장성을 유지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첨단스튜디오 리모델링을 계기로 1학과 1MOOC 콘텐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PRIME)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프리인 사업단을 중심으로 오는 2019년 2월까지 WK-MOOC 콘텐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농·특산물의 공동상표 '새들군산' 홍보

2개소 대형 옥외광고판 설치



군산시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품질 농·특산물의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홍보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변 등 군산을 통과하는 차량 및 방문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2개소 대형 옥외광고판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청결한 군산 농·특산물 상표인 '새들군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 3개소의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하여 '새들군산' 이미지 그림을 부착, '새들군산'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SNS 홍보 등 사이버 홍보로 매체를 다변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새들군산'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의 촉진과 전국적인 판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새들군산'은 새만금의 '새'와 황금빛 들녘의 '들'로 '새만금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 내 생산되는 농·특산물 품질의 균일성, 포장의 규격화,

위해물질 안전성, 품질관리 수준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3월 현재 680여 개소 농가에서 생산되는 1568개 품목에 '새들군산' 상표의 사용승인을 해줬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군산시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식품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31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식품위생 감시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59개소,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132개소로 총 191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된 불량원재료의 사용 및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간여행마을' 로 불러주세요

대표관광지 명칭 붙여... 군산관광 마케팅 가속도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시의 대표관광지에 '군산시간여행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군산시간여행마을'은 그동안 원도심 일원의 대표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근대역사지구, 근대역사문화거리, 근대마을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러 혼동을 겪게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대표관광지의 명칭은 타 관광지의 화려함보다는 군산 원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과거 근대역사 문화의 흔적들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공간인 군산만의 매력적인 이미지와 잘 부합된다는 평가다.

'군산시간여행마을'은 브랜드네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BI(Hello, Modern)와도 일맥상통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시는 '군산시간여행마을' 명칭의 대내외 홍보활동을 위해 각종 홍보물, 안내판, 지도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군산시간여행마을' 캘리그라피 개발과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여 관광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군산 대표관광지 통일명칭 부여를 통해서, 3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에 가속도가 더해질 것"이라며 "군산시간여행마을의 브랜드네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군산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브랜드를 구축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상담회

군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상담회를 7일 개최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지역 13개 유관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도 군산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과 지난해 지원 사업 중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금, 인력, 기술정보 등 분야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등이 이뤄졌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산시는 중소기업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자료를 참여자들에게 배부하여 행사 이후에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그동안 군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시책들을 준비했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